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25. 3.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특별자치 행정국	보도자료 PRESS RELEASE	4.3지원과장	홍호진	☎ 710-8430
		4.3총괄팀장	이경민	☎ 710-8431
동영상 : 있음 ☐ 없음 ☒		사진 : 있음 ☒ 없음 ☐		후속 자료 : 없음

제주4·3, 이제 기록유산으로 세계와 만나다

- 한국 현대사 최대 비극의 치유과정, 파리서 특별전시회 개최 -

-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는 제주4·3 기록물을 조명하는 특별전을 파리에서 개최한다.
- 이번 전시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4월 2일~17일)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에 맞춰 4월 9일부터 15일까지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에서 열린다.
- 특히 전시가 열리는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Maison de la Corée)은 2023년 제주4·3을 다룬 한강 작가의 소설 『Impossibles adieux(작별하지 않는다)』의 프랑스어판 출간 기념행사가 개최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간이다.
- ‘진실과 화해에 관한 기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2023년 11월 UNESCO에 제출된 1만 4,673건의 기록물 중 핵심 사료들을 선보인다.
- ‘기억의 시작’부터 ‘희망의 미래’까지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 제주4·3의 역사와 화해의 과정을 세계인들과 공유한다.

- 전시는 4·3의 발단,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 기록과 유족들의 증언, 그리고 진실규명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과 화해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준다. 마지막 공간에서는 관람객들이 남긴 평화의 메시지가 제주를 상징하는 동백꽃으로 피어나는 참여형 전시가 펼쳐진다.
- 전시 공간 한편에는 제주의 유명 관광지이자 4·3 당시 학살 현장인 “정방폭포”를 배경으로 한 이명복 작가의 “기다리며(2015)” 작품을 소개한다. 4·3의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이명복 작가의 작품을 엮서로 제작해 관람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제주도 관계자는 “한 지역의 비극적 역사가 진실 규명과 화해로 승화된 제주4·3의 사례는, 현재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폭력의 치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며,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통해 온 세계로 제주 4·3의 해결 사례가 전파되고, 미래 세대에 역사적 진실을 전달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4·3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에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제주4·3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으로, 당시 인구 30만 명 중 10%에 달하는 3만여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받았던 이 비극은 제주도민들의 끈질긴 진실 규명 노력으로 2000년 특별법 제정, 2003년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 2022년 4·3발생 74년 만에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보상이 시작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용서와 화해를 통해 폭력없이 갈등을 극복한 사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